

# 여초지역 10년간 8곳으로 늘고

(여자 인구가 남자 보다 많은 지역)

## 1인 가구 '1000만 시대' 열렸다

### 행정안전부 통계

여초지역에 대전·세종·인천 추가  
여자 인구 100명 당 남자 99.2명  
가구 5곳 중 2곳 이상 '홀로 거주'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은 지역이 지난 10년간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기준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는 99.2명이다. 또 전국의 1인 가구수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기준 여초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이후 10년 동안 대전과 세종, 인천 등 3곳이 추가됐다. 이 중 인천은 올해 2월 남초에서 여초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이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93.5명으로 남자 인구 비중이 가장 작았다. 서울지역은 여자 484만 명, 남자 453만 명이다. 이어 부산이 95.0명, 대구 96.5명, 광주 97.5명

순으로 남자 비중이 낮았다.

여자 100명당 남자 비중은 울산이 105.8명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는 충남(105.2명), 충북(103.5명), 경북(102.2명), 전남(101.7명) 순이었다. 이 밖에,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101.1명, 가장 적은 세종은 99.1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남초 사회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6월에 사상 처음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따라잡았다. 올해 3월 남성 2554만 명, 여성 2574만 명으로 여자 인구가 20만 명 더 많다.

15년 전인 2009년 3월에만 해도 100.3명으로 남자가 여전히 과반이었으나 남초 사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추세는 '남아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의 사라진 데다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70대와 80대 여자 인구는 각각 401만 명, 206만 명이었다. 반면 갈

은 나이대의 남자 인구는 184만 명, 75만 명에 그쳤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1인 가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02만 1413개로 전체 가구(2400만 2008개)의 41.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으로, 가구 5곳 중 홀로 거주하는 가구가 2곳이 넘는 셈이다.

올해 3월 1인 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3월(692만 개) 대비 310만 개(+44.7%) 증가했다. 1년 전(2023년 3월·981만 개)에 비해서도 21만 개 늘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 정책센터가 최근 펴낸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 가구보다 노령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 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3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

## 금감원-네이버, 금융감독 디지털 혁신 맞손

'하이퍼클로바X' 등 적응방안 모색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3일 체결했다. 양측은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업무도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마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보, 김남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양사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금융감독 업무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지속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산업혁명 수준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

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 업무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AI활용 측면에서 네이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1년여 정도는 시장 대응과 위기 관리 이슈로 미래지향적인 이슈나 생산성을 높이는 이슈에 (신경을) 덜 썼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의 IT 기술력을 활용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이사는 "팀 네이버의 AI 기술은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 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진행해 온 협력을 바탕으로 금감원 업무 혁신과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협력을 약속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물가안정 최우선… ‘체감되는 성장’ 총력”

최상목 부총리, 거시경제 간담회  
“지난 2월 경기회복세 뚜렷해져  
올해 성장률 상향조정 하기도”

수출 실적이 반등하고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에 달하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해외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시장과 소통 및 인식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가 제조업 개선 및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는 등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1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향조정할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JP 모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분기는 0.4%에서 0.6%로, 올해 연간으로는 2.2%에서 2.3%로 올려 잡았다.

또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2월 반도체 생산이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주요 외신 등을 인용하며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내수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 활성화 방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LG “삼성의 OLED TV 생산, 기회요인”

>> 1면 '초연결 삼성'서 계속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 TV 시장을 두고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LG전자가 OLED시장은 주도했지만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53% 점유율을 차지한

다. 11년 연속 OLED TV 부문 출하량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다만 삼성전자, 소니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LG전자의 OLED TV 점유율은 옴디아 집계 기준 2021년 58.7%에서 2022년 54.3%에서 2023년 4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024년형 네오(Neo) QLED TV와 OLED TV 신제품을 공식화 하면서 전략을 수정

했다. 중국기업이 저가가격을 내걸며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 이에 중국보다 기술력이 높은 OLED 제품이 시장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후발주자로 나선 것.

이에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사장)은 “LG전자가 OLED TV 시장에서 11년동안 넘버원이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쟁사(삼성전자)가 (OLED TV)를 안 하겠다 하다가 결국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사업자 대출, ‘자금난’ 자영업자 위한 것”

>> 1면 '주택 구입 목적'서 계속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나 불법이나,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사안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중대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간 검사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금감원이 해당 대출을 검사하는 것이 ‘선거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금감원이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히려 “지금처럼 오해가 많지 않은 시기에 이 사안이 나왔다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검사했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발생한 ‘저축은행 작업 대출’ 사례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며 편법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대출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빠른 검사와 불법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019~2020년께에 벌어진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2022년에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했었다”며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데, 사업자 대출로는 (대출의) 80~90%까지 받을 수 있으니 15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6개월 사이에 3억~5억원의 차익을 내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당시 차익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당시 600~700건 이상을 적발했고, (대출 시) 사업자 증빙 자료를 만들어 돈을 빌리는 단순한 패턴이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비슷한 사례라면 검사에 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